

#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과

##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정책

이 상 훈 (한국원자력연구소)

우리나라 제4차전원개발계획 (1976~1986)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 10월경에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상업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소는 일반수력, 화력발전소와 달리 많은 량의 방사성 물질을 다루게 됨으로 핵분열 물질에 의한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인명, 재산의 절대 보호와 국토환경보전이 시급히 요청된다.

### 1. 부지 선정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선정은 원자로의 가동사고와 정상 가동시에 환경에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야기되는 방사성 장애로부터 일반 대중 및 자연환경을 안전하게 보전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지 선정 지침으로서 환경관리문제를 비롯하여 공학적·지질학적·사회경제적 제인자를 고려함은 물론 건설과 운

전종의 예측사고 및 원자로 시설들의 보안대책까지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방사성 폐기물처리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의 증진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력 시설등에서 상당한 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방사성 장애는 당대에 일어나는 신뢰적인 장애와 후세에 발생하는 유전적 장애가 있어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등에서 유출되는 방사선 핵종의 안전 처리와 영구 처분을 연구기관에서 개발 연구를 하고 원자력 사업자나 정부당국의 계획적인 기술개발 정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